

파우스트 (Faust)에서 배우다



"400년 동안 우리의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파우스트적 인간의 속성과 갈망, 그리고 영혼을 팔아가며 깨달았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최근 네크로슈스의 파우스트(FAUST) 내한 공연이 있었다. 파우스트는 괴테(Goethe)가 60년에 걸쳐서 완성한 필생의 대작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내가 희곡 중 파우스트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과 지옥을 오가며 인간 내면의 속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우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도 있다.

천상의 신과 악마(메피스토펠레스)는 지상에서 고뇌하는 파우스트를 내려다보며 내기를 한다. 파우스트는 철학,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까지 속속들이 연구하며 진리를 탐구하였으나 결국 삶에 대한 욕망으로 현세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한다. 악마는 고뇌하는 파우스트에게 다가가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향락과 권력을 약속하고, 그것을 만끽 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파우스트의 영혼을 거두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는다.

파우스트는 시공을 넘나들며 권력과 사랑에 도취 되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자 다시금 절망에 빠진다. 이때 마지막으로 내세를 단념하고 현실 속에서 공익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공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찾는 '진정한 아름다움' 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파우스트는 이 세계와 영원히 고별을 하게 된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 400년 동안 우리의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파우스트적 인간의 속성과 갈망, 그리고 영혼을 팔아가며 깨달았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혼란스러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파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며 깨달았던 '진정한 아름다움' 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_ God in Faust

Written by C.E.O 노상충(James Roh)

James Roh

